

총장 선거 앞두고 교수·직원간 내분 조짐

“교수회는 합의사항 이행해야” 주장
직원 선거참여율 쟁점… 해결 난망

내년 2월 예정인 차기 총장 선거방식 등을 놓고 캠퍼스가 술렁거리고 있다.

발단은 총장선거에서의 직원 참여 방식 등을 골자로 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개정규정’이 학무회, 평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 1일 공포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직원의 선거 참여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총장선거에서 전임교수는 1인당 1표를 했지만 직원들의 참여 인정 비율은 1차 10%, 2차 7%, 3차는 3%만 각각 배정, 반발이 적지 않았다.

확정된 개정규정 6조 2항에는 “직원의 참여비율 및 범위와 투표방식 및 환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가 시행세칙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평의회에서 이를 내용으로 한 선출규정이 상정돼 공석 논의됐다. 그러나 이 안은 평의회 위원들의 찬반 투표로 직원들의 선거권과 관련한 6조 2항에 대해 교수회가 마련한 당초 원안에다 단서조항을 넣어 통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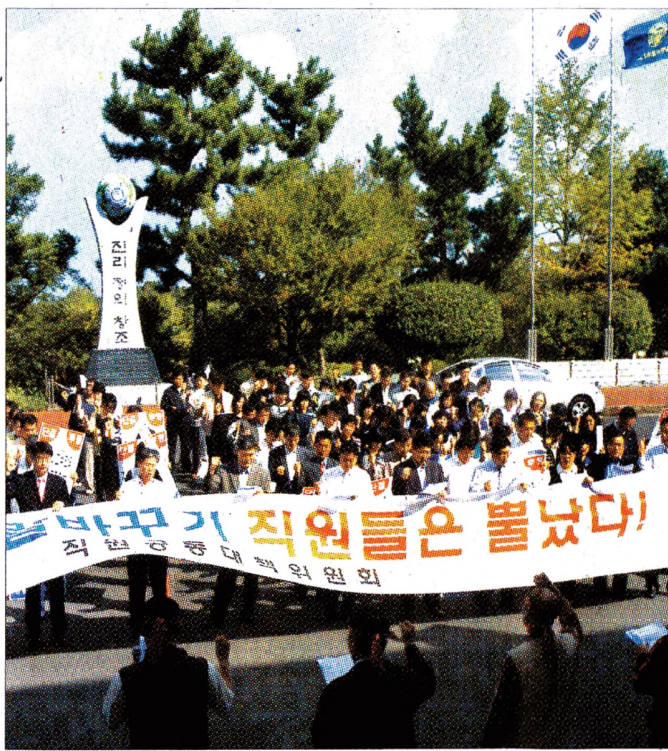
이에 대해 총장선출직원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문규·김태성, 이하 직원공대위)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직원공대위는 지난 2일 결의대회를 열고 “교수회가 이행합의서의 이행 노력은 고사하고 ‘직원들이 학무위원들에게 로비했다’는 허위사실로 이행합의서를 무력화시킨 뒤 개악된 규정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직원공대위는 또 “교수회는 이행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직원들과의 협상에 나서 불신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상정된 규정을 원안통과하면서 직원선거권 조문만을 수정 의결한 이유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직원공대위의 이행합의서에는 ‘단서 조항 삭제합의’가 아니라 ‘삭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명시됐다”며 “교수회가 임원회의 의결만을 거쳐 선출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또 “직원단체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차기 총장선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



지난 2일 직원공대위는 본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수회는 이행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되길 원한다”면서 “직원의 선거권 비율을 두 단체 모두 만족할 수 있게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직원공대위 측은 지금까지 교수회와 벌인 협상 내용과 선출규정 내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피켓시위와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공대위 측은 소속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공작협, 대학

노조 별로 입장 정리에 돌입하면서 선거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김태성 대학노조 제주대지부장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은 총장 추천위가 직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칙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불합리한 규정을 바꾸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복 대기자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폭 확대해야

나눠먹기 전략… 최저 1만6천원 차이
교육부 평가, 중급에서 하급으로 격하

교원간 평가를 통해 차등지급해야 할 교원성과급 제도가 사실상 나눠먹기식으로 전락, 경쟁을 통한 교육공로 조성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성과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 일률적으로 배분되기 보다는 더욱 열심히 노력한 교원들에게 차등 배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우리대학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등급을 지난해 중급에서 하급으로 격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올해 성과급 예산의 54.1%만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는 중급 평가를 받아 77.7%를 교부받았다.

교육부 평가대상이 된 2007년도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보면 아래캠퍼스 소속 교원의 경우, 교수는 최고 382만원에서 최저 254만원으로 127만원의 등급별 차이를 보였으며, 부교수는 최고 359만원, 최저 239만원으로 119만원, 조교수는 최고 335만원에서 최저 223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전임강사는 일률적으로 모두 C등급을 판정했다. 그나마 5개 등급별 차이가 최고 127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교육대학 교원들의 성과

급별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사립캠퍼스 소속 교원의 경우, 교수는 최고 240만7480원에서 최저 238만5430원으로 2만2050원 차이에 그쳤으며, 부교수는 최고 227만600원에서 최저 224만9620원으로 2만640원, 조교수는 최고 212만4950원에서 최저 210만8040원으로 등급별 차이가 1만6910원에 불과했다. 경쟁력 제고의 유인으로서 는 민망한 낙차다.

다른 국립대학의 경우, 경북대는 등급별로 800만원 이상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전북대는 최고 400만원 차이, 충북대는 200만원 이상, 부산대는 180만원 이상의 차등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교원성과급이 개인의 교육성과에 따른 상여금 형식인 만큼 성과급에 실질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윤복 대기자



지난 2일 정문에서 수익학과 학생들이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를 홍보하고 있다.

김규정 수습기자

“사전선거운동 막지 못한다” 예비후보 반발

고충석 총장 “선거운동 제한조항 구체적 반영”

지난 1일 공포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개정규정’과 관련해, 차기 총장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이 선출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양경주(영어영문학과), 김부

찬(법학부), 감지용(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일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개정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직 총장이 재출마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데 있다”면서 “현직 총장이 또 다시 차기 총장에 출마할 경우 선거 기간 내내 현직 총장이 많은 특권을 독차지함으로써 다른 후보와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충석 총장은 2

일 ‘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공포된 선출규정에는 총장 및 본부 보직자 본연의 직무수행에까지 지장을 줄 만큼이나 엄격하게 사전 불공정 선거운동을 차단하는 구체적 내용을 선출 개정규정에 담고 있다”면서 “이 조항은 학무회의뿐만 아니라, 평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심의되었으며, 당초 교수회(안)의 취지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3대 교수회장에 고경표 교수 당선



회장 선거에서 투표수 389표 중

제3대 교수회장에 고경표(무역학과) 교수가 당선됐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제3대 교수 221표(56.8%)를 획득한 고경표 교수가 163표를 획득한 강민수 교수를 제치고 제3대 교수회장에 당선됐다. 판권기사 5면

고경표 교수는 오현고와 제주대 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경영학석사, 건국대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1982년 우리대학에 부임한

후 제주경상학회 회장, 경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장, 미국 오하이오주 주립신시내티대 경영대학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현재 한라일보·제주일보 비상임 논설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무역학회 이사,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한국무역통상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고 교수의 임기는 오는 11월1일부터 2010년 10월말까지다.

'제3창학'으로 "전국 명문 대학 20위 진입"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 500병상 제주대학교 병원 완공,
2008년 3월 제주교대 통합, 메디컬스쿨 개원, 수의과대학 신설 등
제주대학교는 새로운 식구들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중어중문학과 3학년
양은주

2009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2학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기간 : 2008. 9. 16(화) 09:00 ~ 9. 19(금) 17:00까지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접수(<http://www.uway.com>)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기간 : 2008. 10. 6(월) 09:00 ~ 10. 10(금) 18:00까지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접수(<http://www.uway.com>)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기간 : 2008. 10. 13(월) 09:00 ~ 10. 17(금) 17:00까지
원서접수 방법 : 인터넷접수(<http://applybank.jinhak.com>)

자세한 사항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cheju.ac.kr>) 참조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주의! 교육대학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정보부족에다 떠돌이 신세 되기도

사라캠퍼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대학 교환학생제도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교류수학을 위해 타대학에 가있는 학생들에게 대한 관심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부산교대에서 교류수학을 하고 있는 정보(교육대학 미술교육 3) 학생은 "전산시스템에 이름이 등록돼 있지 않아 학교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열람도 안되는 등 대학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같은 학교에서 교류수학을 했던 이나리(교육대학 교육학과 4) 학생은 "학기말 성적을 교지

원이 메일을 통해 직접 보내주었다"고 말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기숙사 문제도 원활하지 않다. 서울교대의 경우는 교환학생 중에서 여학생만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학생들이 교환학생을 희망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취방을 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기숙사 수요가 넘치는 2학기에는 여학생들도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성적평가방법이 다른 것에 따른 문제도 있다. 타 교대는 대부분 상대평가인데 비해 사라

캠퍼스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한 강의실에서 서로 다른 평가방법에 의해 점수가 주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교류학교간의 의사소통이 절실하다. 지난해 2학기에는 부산교대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3명이 확정되었다가 1명이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상호교류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사라캠퍼스 교환학생 제도는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에 관계없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김규정 수습기자

전기에너지연구센터 개소식 지난달 26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전기에너지연구센터(센터장 오성보 전기공학전공 교수) 개소식이 지난 26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진행됐다.

센터는 세계적 흐름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어들어 따라 제주지역에너지에 대한 전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체제 구축과 전력IT사업을 창출해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연구센터를 개소했다.

전기에너지연구센터는 앞으로 전력IT를 이용해 제주 전력계통의 안정화 연구활동, 분기별 연구센터와 협력기관과의 공동 발표회, 전기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언, 신재생 에너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원을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 이후 진행된 산학연 워크숍에서는 김일환(센터 연구개발부장 전기공학전공 교수)의 사회로, 제주지역에서 전기에너지 정책에 대한 제언 및 신재생 에너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발전원에 대한 안정적 계통연계연구와 산학연관 협업체를 통한 제주지역 에너지 공급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강소진 기자

아라캠퍼스 단신

이광진교수팀 국제대회 입상



이광진 지도교수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학과 이광진(지도교수), 홍철의(강사), 백한일(문화조형디자인 4), 곽주(문화조형디자인 4)학생이 독일의 '2008 Red dot award'와 미국의 '2008 IDEA award'를 동시에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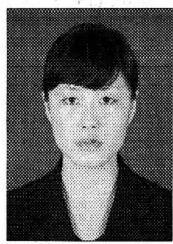
특히 이번 작품은 Red dot award winner와 IDEA award Finalist를 수상해 제주지역 디자인계의 성과를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경쟁력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Red dot award에 출품한 수상작은 'Color Playground'로 색의 변화를 이용한 어린이 놀이기구이다. 기존의 구조적인 면에서 놀이기구의 높이를 낮추고 유기적인 형태로 디자인을 했으며 만지면 변하는 색의 변화로 재미를 줌 새로운 개념의 창조적이고 안전한 놀이기구라는 평이다.

한편 독일 Red dot award와 미국 IDEA는 독일 IF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불려진다. red dot award는 유럽의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의 오스카상으로 일컬어지며 IDEA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와 비즈니스위크 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디자인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린다.

하반기 공직설명회, 8일 오후 2시

직업능력개발원(원장 김희철 무역학과 교수)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2008년도 하반기 공직설명회'를 경성대학 1층 강당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 등 공직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행사에서는 이광철(행안부 인력개발기획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의 인재상 등 공직 일반사항, 7·9급 및 고등고시 공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최근 면접사례 등과 같이 달라진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김해영 원우, 재외동포문학 대상



김해영 학생

김해영(교육학과 박사과정) 학생이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한 2008년도 재외동포문학공모사업에서 대상을 받았다. 김해영 학생은 중국 출신으로 '5일간의 체험이 남긴 여운'이라는 주제의 작품으로 수상을 했다.

수기 형식인 이 작품은 김해영 학생이 5일간의 2007년 장춘 동부사범대학 임시 체험을 계기로 새롭게 느낀 민족의 교육과 삶을 담았다. 짧은 5일동안 새로운 일들 속에서 받은 충격과 감동, 여기서 비롯된 느낌들을 표현했다.

출판부, 이달말까지 출판신청 접수

언론출판센터 출판부(부장 이창익, 일어일문학과 교수)는 오는 31일까지 2008년도 2차 출판신청을 받는다. 교양교과와 전공학술 도서, 제주학 총서 등에 한해 출판신청을 받으며, 시장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심사를 외부에 의뢰할 계획이다. 출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1부와 저자가 원하는 판형으로 가편집한 출력물 1부, 원고자 입력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754-2275

모의주식 투자 참가자 오는 17일까지

경성대학(학장 이상봉 교수)은 오는 17일까지 모의주식 투자대회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http://www.daishin.co.kr/7kfchejw) 받는다. 최우수상인 1위 입상자에게는 150만원, 2위 (2명) 75만원, 3위 (4명) 50만원 등 본선 진출자 7명을 대상으로 총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관광상품아이디어 23일까지 공모

관광경영학과에서 오는 23일까지 관광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여행상품 또는 기념품 등과 같은 관광과 관련된 상품개발 아이디어 분야로 공모가 가능하다. 관광경영학과 재학생이면 누구나 팀 또는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유양식으로 접수기간 내에 제목과 응모자를 표기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캠퍼스 곳곳서 눈길 사로잡는 전시회 열려 컴퓨터공학 전시회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성황

최근 학내 곳곳에서 재학생들과 예비졸업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회부터 졸업생들만의 작품전시회까지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공대 4호관에서 컴퓨터공학전공의 제23회 작품전시회가 진행됐다. 다른 학과와 달리 전공을 살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보였다. 부회장이인 조형준(컴퓨터공학 2) 학생은 "작품 하나하나 만드는 것

을 보면서 학생 수준보다 높은 프로그램들이 꽤 많다고 느꼈다"며 "매년 있는 작품회지만 일주일동안 밤샘작업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작품회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즐기던 황인철(컴퓨터공학 2) 학생은 "작업 해보니까 재밌다"며 "열심히 만들면서 전공서적에는 나오지 않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실력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편 ▲의류학과와 ▲작품전시회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신산갤러리 ▲미술학과와 ▲한국화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양화는 18일부터 22일까지, 조각은 23일부터 26일까지 문예회관 제2전시실 ▲음악학과와 정기간주회는 오는 31일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소진 기자

세계인명사전 등재 및 국제교육자 선정

김부찬 · 조정원 · 이남호 · 변종철 교수



김부찬 교수



조정원 교수



이남호 교수



변종철 교수

김부찬(법학부) 교수, 조정원(컴퓨터교육과) 교수, 이남호(화학) 교수, 변종철(화학) 교수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인명사전 '미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됐다. 김부찬 교수는 2006년부터 이번년도까지 3년 연속 미르퀴즈 후즈 후의 Who's who in the world인명사전에 등재되었으며, 2006년에는 국제법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에서 '2006년 국제교육자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각 분야의 탁월한 사람들을 인명사전에 추천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조정원교수는 미르퀴즈 후즈 후의 'Who's who in the world 26th Edition 2009' 이외에도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10th Anniversary Edition 2008-2009'와

'Who's Who in America 63rd Edition 2009'에 등재되는 등 총 6개의 인명사전에 올려 선정됐다. 이남호 교수는 제주 다성 식물을 이용한 기능성물질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의 과학기술논문 추가 인용색인(SCI) 논문 20여 편과 특허 등록 4건 등 천연물 분야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변종철 교수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IBC에 등재되며 더불어 IBC에서 매년 엄선하는 2007년 국제적 교육자 및 TOP 100 교육자 2007에 선정됐다. 또한 거대고리 착물 관련 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SCI)에 30여편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새로운 거대고리 화합물 20여종을 합성해 결정구조를 밝혀낸 바 있다. 김규정 수습기자



취업에 눈뜨다

지난달 29일 학생회관에서 다음커뮤니케이션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상담회가 열렸다. 강은정 기자

‘생명의 숨결속으로- 신화전’ 박물관 주최, 내달 5일까지

박물관(관장 김동진 사학과 교수)은 다음달 5일까지 '생명의 숨결속으로-신화전'을 개최한다. 김동진 관장은 "이번 신화전은 고리타분하게 느낄 수 있는 인문학을 접근성이 강한 화문으로 거듭나게 하기위한 점진적 모색 단계"라며 "대중화와 함께 인문학 콘텐츠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소진 기자

‘I LOVE 아라체전’ 총학생회 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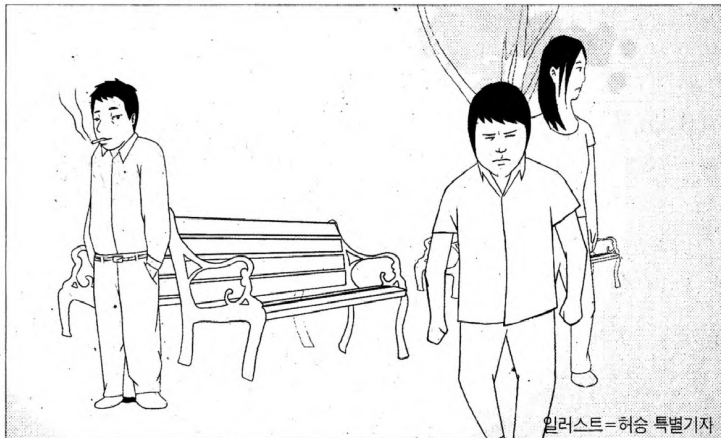
'I LOVE 아라체전'이 40대 전력질주 총학생회(회장 강동호, 국어교육과 4) 주최로 어제부터 8일까지 대운동장 및 한라터 등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아라체전은 학우 및 교직원 등 제주대 구성원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로 종목은 축구, 농구, 족구, 씨름, 피구, 줄다리기, 발아구, 승부차기, 계주, 줄넘기 등이다. 이벤트 행사로 남학생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FREE KICK 골포스트 맞추기, 여학생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발아구 훌렁왕 가리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폐막일 오후 4시부터 경품권을 배포하며 폐막식 때 경품권 추첨이 이뤄진다.

안희진, 박은지 학생 금상 수상

언론출판센터 영자신문사는 지난 4일 법정대 중강당에서 '제29회 영자신문사 대외어대'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중등부 안희진(제주서중 3) 학생과 고등부 박은지(제주사대부고 1) 학생이 금상을 수상했다. 또 은상은 이승희(서귀중양양중 3), 현은우(중앙여고 1) 학생, 동상은 오다혜(중앙여중 1), 김예지(신성여고 1)학생, 장려상은 고태호(제주동중 1), 김선희(신성여고 2)학생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지도교사는 장원실(제주서중), 이태리(제주사대부고) 교사가 수상했다.

“아라캠퍼스는 금연구역 아시나요?”

다양한 금연 캠페인 절실



흡연자들로 인해 간접흡연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교육기관 내 전 건물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길이 없다. 그 이유는 캠퍼스 내 곳곳에 아무렇게나 담배연기를 내뿜는 흡연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양동, 자연대, 경성대 등은 대

학전물 입구마다 대놓고 연기를 뿜는 이들이 있다. 이럴 때마다 숨을 참고 다른 쪽으로 피하기는 비흡연자들의 모습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실제 지난달 18일 자유게시판에는 '교양동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학생이 있었다. 글쓴이 남호경 학생은 "항상 복도에서 담

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피우고 있을 수가 있죠?"라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화장실 또는 복도에서 피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적어놓았다. 총무과의 한 관계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누구를 우선시 둘 수는 없다"며 "그래도 흡연자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나마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 보다 자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흡연자의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 학교의 경우 금연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적어도 비흡연 학생들을 위해 제주대 아라캠퍼스 전 구역은 금연임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소진 기자

'대의원 입후보자 4학년 제한' 회칙 개정안 무산

대의원 총회에서 학생 및 선거관련 회칙 일부 개정

지난달 30일 하반기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하반기 정기대의원총회는 정족수 217명 중 1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2학기 (가)예산 사유서, 2학기 (가)예산 결과 보고, 2학기 학생회비 납부 현황,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 장애인인권 대책위원회 활동계획이 보고됐다. 이어 학생회칙 및 선거·감사 시행세칙 개정안 승인,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예산 분배 승인, 중앙자치기구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예산 승인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학생회칙 개정안은 출석한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총학생회장·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52조 부사별 기능 삭제 △학내 모든 학생자치기구의 보궐선거는 105조 1항(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결위 시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기간이 150일 이내일 경우 부학생회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의 회칙을 따른다 △학생회비는 학교당국에서 징수하여 대의원회에서 관리하



지난달 30일 경상대 2호관 세미나실에서 하반기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고 총학생회장의 요구와 대의원의 장의 동의에 의해 집행한다. △발의시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30일 이내에 총운영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적 인원 2/3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2/3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재적인원 2/3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단, 회칙개정의 긴급사하는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쳐 대의원총회로 바로 상정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됐다.

또한 선거관리 시행세칙 개정안

은 △대의원회 정·부의장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학년대표에 선출된 1, 2, 3학년 대표만이 1인 1투표의 선거권을 갖는다 △대의원회 정·부의장 입후보자는 당해연도 및 당해학기 학년대표로 선출된 자로 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직으로 대의원 의장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결정 착오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은 중앙선거위원회에 의해 등록된 자로서 최대 2인까지 등록한다 △선거 사무장은 정·부 후보자를 대신하여 중앙선

거 관리 위원회와 선거운동 등 선거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선거 사무장의 결정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각 선거운동본부는 수용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사무장 회의시 결정된 긴급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후보자 회의로 결정할 수 있다 △야간 강좌부 투표시간은 18시부터 22시 50분까지 한다 △선거시 선거인명부는 각급 선거관리 위원장 이외에는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다고 일부 개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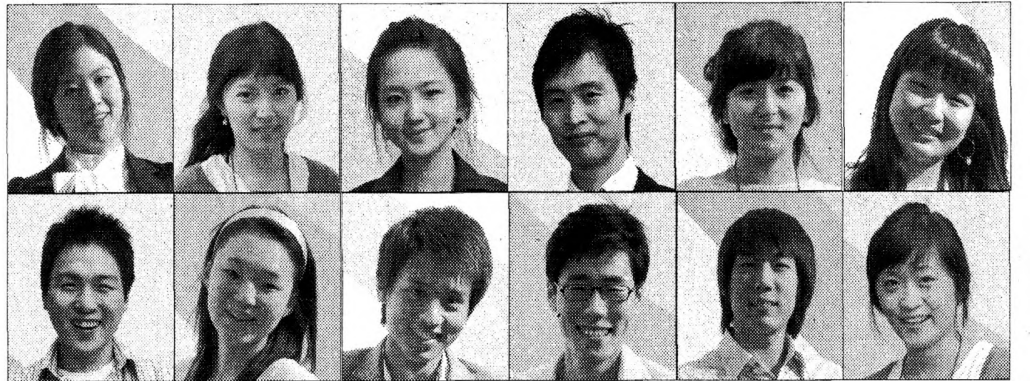
그러나 △대의원 정·부의장 입후보자는 4학년은 될 수 없다 △선거운동 본부는 선거운동원 명부를 작성하여 등록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원 중 선출된 운동원은 선거운동시 총운영위원회를 사퇴하여야한다 △선거 운동중 추가되는 운동원은 신고하여 승인 받으면 인정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과도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는 추가안은 출석정족수 2/3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강은정 기자

'대학의 꽃' 홍보도우미 12명 선발

사라캠퍼스서 2명 뽑혀... 맹활약 기대



제7기 홍보도우미. 왼쪽 위부터 공은주, 김가영, 김소영, 김재현, 김현아, 박미정, 송대하, 양유열, 양창모, 이승호, 전다빈, 차규은 학생.

지난달 26일 우리학교의 얼굴이 될 제7기 홍보도우미를 뽑기 위한 면접이 진행됐다. 심사는 총 100점 만점에 성적 20점, 면접 80점을 합산해 학교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게시했다. 홍보팀 관계자는 "앞으로 홍보도우미들은 고 3수험생들을 위한 입시홍보 및 캠퍼스 투어안내, 손님 접대 대상으로 한 각종 박람회, 행사 등에서 학교를 안내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며 "학생 홍보대사는 학교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

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라캠퍼스의 경우 2명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단합하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앞으로도 그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홍보도우미에는 4학년 학생이 이례적으로 뽑히기도 했다. 관계자는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완강해서 3번의 도전 끝에 뽑힌 것"이라며 "그 학생의 경우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 전체적인 면접점수도 높았다"고

말했다. 또 "내년 1학기에 졸업 을 하므로 활동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격자 명단-▲양유열(중어중문 1) ▲김가영(법학부 3) ▲이승호(언론홍보 2) ▲김재현(경영 3) ▲김소영(경제 2) ▲송대하(관광경영 4) ▲차규은(관광경영 2) ▲김현아(수학과 1) ▲양창모(해양과학 2) ▲전다빈(기계에너지시스템 1) ▲공은주(교육대학 음악교육 2) ▲박미정(교육대학 음악교육 2)

강소진 기자

한·일 사이버캠퍼스 구축 합의서 체결

이번 학기부터 화상강의 실시



지난달 25일 총장실에서 양교 사이버캠퍼스 구축 합의서가 체결됐다.

제주대와 일본 교토정보대학원 대학이 지난달 25일 한일사이버캠퍼스 구축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는 이렇듯 인프라를 활용한 화상강의와 관련기술의 공유 등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이렇듯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현재 교육·연구 분야 교류에 활용될 수 있는 원격 실시간 영상 강의 시스템을 구축했고 사이버캠퍼스 구축을 계기로 두 대학간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학술교류와 더불어 교직원과 학생의 인적교류와 교수들이 직접 방문해 강의를 하는 등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2008년 2학기에 박경린(전산통계학과) 교수가 화상강의를 통해 교토정보대학원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일본 교토정보대학원대학은 일본 최초, 유일의 IT전문대학원으로 IT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대학이다.

임윤규 교수, 대한수의학회장 선출

학술 및 지식 교류해 수의학 발전에 기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열린 '2008 대한수의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이같이 결정, 발표됐다. 임교수의 임기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년간으로,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및 후원, 학술지 및 학술도서 발간, 수의학 관련 지성의 국제적 교류 증진, 수의학분야의 학

문적 발전에 공헌한 학자에 대한 학술상 시상 등을 맡게 된다. 대한수의학회는 수의학에 관한 학술연구와 지식교류를 통해 한국 수의학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난 1957년에 창립해 현재 1200명의 회원과 120개의 특별회원 단체로 구성됐다. 또 1961년에 수의학 전문학술지인 '대한수의학회지' 발간과 더불어 현재 국문학술지와 영문학술지 등 총 10회를 펴내고 있다. 한편 대한수의학회 임원진은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5명, 총무위원, 학술·편집위원장, 재무위원장 평의원 등 총 52명으로 구성됐다.

강소진 기자

"대학가도 학습동아리 열풍"

20팀 선정...전공심화 동아리 많아

2008학년도 2학기 능내영학습 동아리 선정팀이 발표됐다. 이번 학습동아리 모집은 총 47팀이 지원하여 20팀(인문대학 3팀, 법정대학 3팀, 경상대학 2팀, 사범대학 5팀, 생명자원대학 1팀, 자연과학대학 2팀, 공과대학 1팀, 교육대학 1팀, 수의대학 1팀)이 선발되어 약 2.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학습동아리 팀들은 심사결과 50점 만점에 최고 48점, 최저 34점 등 평균적으로 40점을 나타냈다. 학습동아리 선정은 학습지원센터장인 도양희(전자공학전공)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학습지원부장과 기초교육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팀이 제출한 참가신청서를 심사했다. 심사기준은 주제의 적합성, 목표의 명확성, 학습내용의 타당성, 학습방법의 타당성, 구성원의 적정성으로 각 항목 당 10점 만점이다. 응모팀들의 학습동아리 주제는 전공심화 34팀, 다학문영역이 11팀, 교양심화 2팀으로 교양보다는 전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한나(교육대학 국어교육 3) 학생은 "편안한 소모임이라 생각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규정 수습기자

고교 영어골든벨 시상

영어교육과 주최

제3회 전도 고등학생 영어골든벨대회 시상식이 지난 1일 본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달 20일 한라아트홀에서 도내 고등학생 14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3회 전도 고등학생 영어골든벨대회에서는 △금상=오혜인(제주외고 2) △은상=김유나(신성여고 2), 오수영(남녕고 2), 정규연(남녕고 2) △동상=이지연(중앙여고 2) △장려상=송한솔(사대부고 1), 김희원(사대부고 2), 고건희(오현고 2), 박승용(제주일고 1), 양석조(남녕고 1) 등 총 11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영어의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영어실력과 일반 상식을 측정하고 영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이 시대 진정한 가치를 찾습니다

미디어제주 기자 공개채용

2008년도 정부신용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 우수 인터넷신문사임을 입증한 미디어제주에 '끼' 있는 젊은 일꾼을 찾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소중히 하는 사회 공동의 선(善) 추구'를 창간이념으로 하는 미디어제주에는 창간 4주년을 맞아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자신감 넘치는 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분야: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 모집인원: 수습기자 0명, 경력기자 0명
- 근무내용: 취재기자
- 모집기간: 2008년 10월 1일 - 채용시까지(접수순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 진행함)
- 전형방법: 1차 - 서류심사, 2차 - 적성면접
- 응시자격: 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다. 4학년 2학기 재학생이 채용 확정될 경우 수습교육 중 2학기 강의일정 배려
- 제출서류: 가. 이력서 나. 자기소개서(입사지원 동기 및 왜 기자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서술할 것)
- 접수처: 가. 이메일 접수: yunchsoo@hanmail.net 나. 직접방문 (제주시 옛 제주세무서 맞은편 조선한의원 3층)
- 기타 사항: 가. 채용이 확정되면 수습교육 후, 정식 발령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제주(전화: 725-3456, 담당: 원성심 팀장 017-696-7170)로 문의바랍니다.

제 28회 백록학술상 헌상 공모

언론·출판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4주년을 맞이하여 제 28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헌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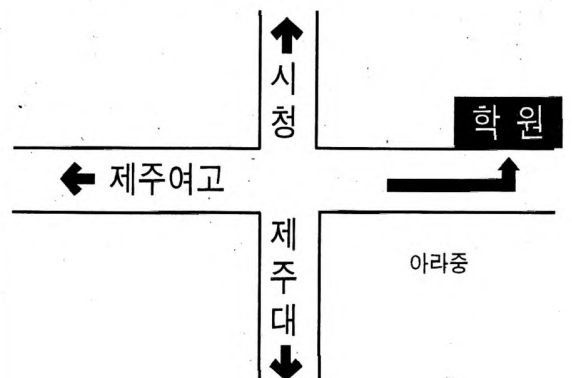
다 음

- 행사명: 제 28회 백록학술상
- 응모자격: 제주대학교 재학생 (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 분야: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출력물과 파일을 담은 디스켓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 시상: 학부생/대학원생(당선작 각 1편: 총정상품 및 상금 50만원, 가작 각 2편: 총정상품 및 상금 30만원)
- * 수상인원은 본사 사정이나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 및 시상: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 접수마감: 2008년 12월 8일 (월) 18:00까지
- 당선작발표: 2009년 신년호 끝.

운 전 면 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 (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 통합 그 후, 어디까지 왔나

통합추진 아직 '미흡' ... 정부지원금 감소가 원인

지난달 30일 양캠퍼스 설명회 통해 통합 추진 내용 점검

지난 3월 1일 적지 않은 고통을 치르고 제주대학교와 제주교대가 통합하여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와 사라캠퍼스로 바꾸었다. 그 후 반년이 지난 지금, 통합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통합 합의안대로 계획된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구성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이 사항에 관련해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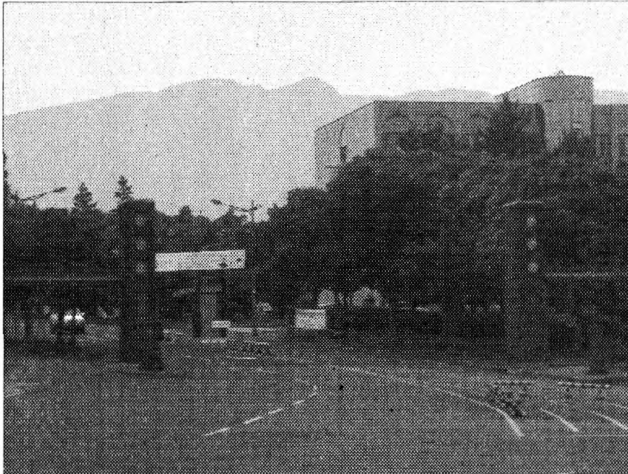
이번 통합으로 우리 대학에 주어진 통합 자금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225억원. 서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루어진 통합인 만큼, 자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방향은 서로에게 상승효과를 주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통합 전 합의안을 만들 때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 글로벌 펀드, 50억 → 35~40억원
글로벌 펀드를 통합조건보다 10억~15억 이하로 조정하여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이 펀드는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조건으로 중요하게 제시되었던 항목으로 초등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수준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약속된 것이었다. 펀드금액 뿐만 아니라 이 펀드에 불게 되는 이자 또한 교육대학의 필요한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었다. 펀드 조성액이 하향조정된 이유는 애초에 정부로부터 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통합지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펀드는 합의안에 명시되어 있듯이 교육시설 개보수, 교육시설 내실화 등 초등교육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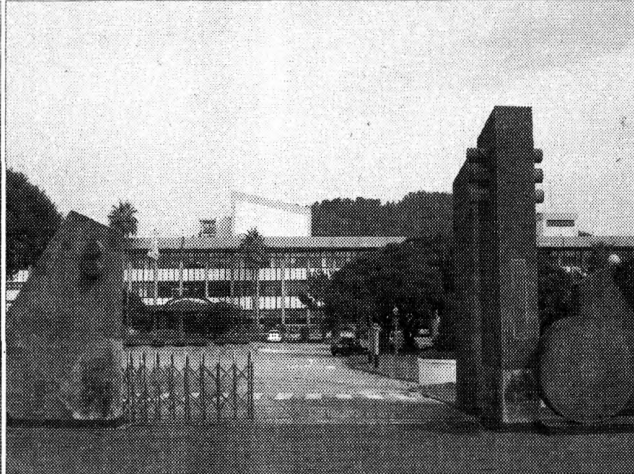
- 사라캠퍼스 교수 증원 전무, 기성회 조교는 7명 배치
통합 합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부에 교수 증원(20명)을 요청하고 양 대학 통합 후 교육대학에 교수를 우선 배정한다'는 조항과 '제주대 배정 원칙에 따라 교육대학에 조교를 배치한다'는 조항은 교육대학에 조교 7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절반의 가시적 성과를 냈다.

제주대 측에서는 사라캠퍼스 측에 4~5명의 교수와 조교 7명을 우선배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큰 관건이라 할 수 있는 교수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교수들 사이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교대만(교육대학 윤리교육) 교수는 지



아라캠퍼스 정문



사라캠퍼스(교육대학) 정문

난 달 30일 아라캠퍼스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수협의회에서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이 정당성을 얻었던 큰 이유 중의 하나인 이 항목이 잘 이뤄지지 않아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충식 총장은 "현재 김경기 부총장까지 포함하여 교수배정인원이 3명, 외국인교수배정인원이 2명 나왔는데 이는 타 국립대학에 비해 비교적 많이 확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 교사교육센터 추진

제주교대가 수년전부터 추진해왔던 교사교육센터 건립은 제주교대를 제외한 전국 10개의 교육대학이 모두 확보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통합 전 제주교대가 확보하는 데에 난항을 겪었던 사실로 현재 교사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학생들에게 강의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다.

고충식 총장은 "이 항목은 통합 합의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육대학 특수성을 감안하여 50억의 예산을 들여 3년간에 걸쳐 건립하기로 했으며 교육부의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 교육대학원 초등교육 박사과정 신설
교육대학 체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정원인 24명으로 하는 초등교육 전공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항목이 합의안에 명시돼 있다. 이 또한 절반의 성공이다. 박사과정이 설치됐지만 애초에 약속된 24명에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어 9명으로 정원이 확정됐다.

통합 전 제주교대에는 교육대학원은 있었으나 박사과정은 신설이 되지 못했다. 통합 후 교육대학원은 제주대와 제

주교대가 하나로 합쳐져 아라캠퍼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박사과정 5개 전공(초등도덕교육전공 2명, 초등사회교육전공 1명, 초등과학교육전공 2명, 초등실과교육전공 2명, 초등영어교육전공 2명)이 신설되어 9명이 배정됐다. 교육학과와 컴퓨터교육과는 각각 아라캠퍼스의 교육학과와 컴퓨터교육전공과 박사과정이 통합운영 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와 더불어 사라캠퍼스에는 전국 국립대학 최초로 사회교육대학원이 신설된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스토리텔링학과, 심리치료학과 등 2개 학과를 개설해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첫 해에 15명을 선발한다.

- 세계교육기행, 해외교육실습 등 추진

교원 양성체제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통합합의안에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한 예비교사 해외 연수 제도화가 명시돼 있다. 현재 세계교육기행과 해외교육실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2008 테마별 세계교육기행 사업은 제주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세계교육기행단 지원을 받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미주 권역으로 팀을 나누어 선정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아시아권역 14팀(교육대학 2팀), 오세아니아권역 6팀(교육대학 3팀)이 선발되었으며, 유럽·미주권역(교육대학 3팀)이 선발됐다.

더불어 제주대는 2009년도에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재학생들이 교사로서의 자질함양과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해외교생실습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획평가과 관계자는 "해외교생실습은 다음달 중으로 최종 확정되어 학생선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대학 시설 개선 가시화

대학통합 이후 사라캠퍼스가 새롭게 단장되고 있다. 통합 1차 년도에 주어진 약 20억원 중 교육대학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일부가 사용됐다.

사라캠퍼스 본관 건물인 연면적 554.4㎡(167평)에 이르는 사라교육관은 증축공사가 한창이다. 사라교육관은 지난 1972년 완공된 건물로 노후화가 진행돼 15억원을 들여 지상 3층까지 증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또 여름방학 동안 폐쇄한 캠퍼스 환경조성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입,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으며, 실과교육관, 학생생활관, 미래창조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벌였다.

- 기타사항

통합제주대의 입학정원감축이 있었다. 아라캠퍼스는 399명, 사라캠퍼스는 21명에 달하는 신입생 수가 줄어들어 총 15.01%의 입학생 수 감축이 시행됐다.

교과과정개편, 행정개편,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정보시스템 인프라 통합, 사라캠퍼스 도서관 DB구축 및 학술자료 확보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업무가 일원화되어 200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교육대학이 학교장추천제로 학생을 뽑았다. 더불어 2008학년도 학부(과) 경쟁력 강화 사업지원이 이루어지는 45개학과 44건 중 교육대학은 3개학과 3건으로 3000만원이 지원됐다. 김규정 수습기자

■ 인터뷰 / 양진건 학생처장

“통합컨설팅 통해 양캠퍼스 능력 키울 것”

통합제주대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지난달 30일 열렸다. 고충식 총장을 비롯, 김경기 부총장, 송성대 대학원장 및 각 처장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지난 한학기동안 양교의 통합이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의 실적을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일 양진건(교육학과) 학생처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양진건 학생처장(교육학과 교수)

- 아라캠퍼스와 사라캠퍼스간 회의 정례화

“통합이전부터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끼리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라캠퍼스의 경우 통합추진위가 그대로 통합조건추진위원회가 될 것이며 사라캠퍼스의 경우 구성원들의 회의를 통해 구성 될 것 같다. 225억원정도의 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재정관련위원회가 현재 마련돼 있다. 이러한 지원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사라캠퍼스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다.”

- 교육대의 독자사업을 지원한다는 데

“회의 때 얘기했던 독자사업은 사라캠퍼스의 특수성을 보전하기 위해 계속 진행되며 학생들의 답사 혹은 사리아카데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 교사 자격증이 통합 이전처럼 발급이 되는지

“당연히 교사자격증 발급이 이뤄진다. 이화여대에도 초등교육과가 있는데 교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확실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겠다.”

- 사라캠, 아라캠간의 활발한 교류

“통합조건 시 2014년까지는 각 교에서 각자의 과정을 거처기로 하는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이번 대교협 컨설팅 조사 중 아라캠퍼스 컴퓨터교육과와 사라캠퍼스 컴퓨터전공에서 같이 교과과정, 교수교환, 개강과제 등 활발한 교류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3억원 상당의 합작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 대

교협 컨설팅에서는 통합에 맞춰 자발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보이는 학과에 격려금 등의 인센티브를 줄것을 권장하고 있다.”

- 사라캠 직원부분대표 평의회 참석은 이뤄지는지

“현재 평의회에는 교육대 교수 2명이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직원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그 부분은 평의회에서 얘기가 이뤄져야 할 문제다.”

- 양 캠퍼스의 학생회 통합은 어떻게 할 방침인지

“조만간 사라캠퍼스 학생회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

시간이 문제인 것 같다. 사라캠퍼스 학생들이 이번 아라캠퍼스에서 열리는 아라캠퍼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양교 학생회끼리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 앞으로의 바람은

“학사 통합은 내년 3월에 이뤄진다. 그러나 아직 양교는 신뢰를 다져가는 단계이다. 현재 통합컨설팅을 통해 아라캠퍼스와 사라캠퍼스 능력 신장과 더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끔 진행 중이다.”

앞으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도 있지만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문제는 양교가 서로 노력해서 빨리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양교가 하루 빨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굳은 신뢰 속에서 한 가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은정 기자

■ 게릴라 인터뷰/ 통합 7개월, 웃을까 말까



“학생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대학 통합 후 사라캠퍼스의 시설을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좋다. 사라캠 학생들과 아라캠 학생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사라캠 학우들에게도 아라 학우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면 함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김도희 (회계 4)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교류 기대”

“올해 새로 선발한 홍보도우미에 사라캠학생이 있던 것이나 지난번 모의유엔 대회 때 사라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통합을 인식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내 교내활동과 더불어 대외적인 활동도 사라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연스럽게 학생들끼리 교류하고 화합했으면 한다.”

/김리나 (언론홍보 3)



“양 캠퍼스간 괴리 없어야”

“교수님들은 양 캠퍼스의 평가시스템이 다른 것을 모르는 등의 통합이 이뤄져도 캠퍼스간에 괴리가 있음을 느낀다. 또 교육대학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골프아카데미를 이용했을 때 이용비를 내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었다. 서로 수업료를 다 냈으면 서로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게 아닌지.”

/한호연 (교육대학 윤리교육 4)



“통합, 실용적인 교류 필요”

“학생들과의 교류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다. 아직도 사라캠퍼스 내에서는 통합을 별로 내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두 학교 간에 감정의 골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이용 통합이 이뤄졌다면 서로 득을 볼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명지은 (경영 3)



“양 캠퍼스가 서로 상부상조 해야”

“양 캠퍼스가 서로 이익이 되게끔 각 캠퍼스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공평하게 주었으면 한다. 교수진들도 서로 교류하면서 특별 수업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김소현 (중어중문 2)



“각 캠퍼스의 특성 살리길”

“통합 후 진척되는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통합 후에 바라는 것은 합의안을 지키는 것 외에 따로 없다. 아라캠퍼스의 시설이 꼭 사라캠퍼스에 있어야 하고, 사라캠퍼스의 시설들이 꼭 아라캠퍼스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않는다. 각 캠퍼스의 특색이 있는 것을 갖추면 된다.”

/오태곤 (교육대학 실과교육 4)



“교육적인 면에서 통합 이뤄져야”

통합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사라캠퍼스'보다는 '제주교대'란 느낌이 강하다. 학생들끼리의 단합도 필요하지만 사라캠퍼스 학우들이 아라캠퍼스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 반대로 가능해지는 등 교육적인 면에서도 통합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아라캠퍼스와 사라캠퍼스가 함께 즐기면서 가까워 질 수 있는 행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진희 (영어영문 2)



“지속적인 지원 계속 이뤄져야”

“제주교대로서는 혜택 받을 수 없던 해외여행 지원이라든지 좀 더 넓은 장학금 혜택 등이 통합의 긍정적인 면 같다. 혜택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대에는 좋지나 나중에 가면 점점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우려도 된다.”

/강미란 (교육대학 체육교육 3)



“통합 후 진행상황 투명하게 공개해야”

“학교의 명칭이 바뀌면서 막연하게나마 학교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의 통폐합 진행 상황을 인식하고 또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최종환(교육대학 국어교육 1)



“서로 협력하는 행사 이뤄지길”

“아라캠퍼스에서는 해마다 엄청난 돈을 들이며 연예인을 초청해 축제를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라캠퍼스는 정말 학생들이 화합된 축제가 이뤄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학축제 예산을 다른 환경 개선을 위한 부분에 쓰고 우리 스스로 준비해서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 보는게 어떨지.”

/허재현 (전산통계 1)



“통합 후 정보 불이익 받지 않도록”

“이번 4학년 선배들이 임용 고시를 앞두고 학교의 통합으로 인해 정보의 불이익(교육대학 연합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어)을 받았다든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김경기 부총장이 호언장담했던 것과 역행하는 현상이다. 학생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학교측에서 좀 더 신경써주었으면 한다.”

/문지원 (교육대학 국어교육 2)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기회가 주어지길”

“학교가 통합되면서 해외연수 등의 기회의 폭이 넓어지고 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 아직은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보지 못했다. 아라캠퍼스와의 교류도 지금보다 더 진전되었으면 좋겠다.”

/황인애 (교육대학 체육교육 2), 고은아 (교육대학 사회교육 2)

■ 고경표 신임 교수회장 / 인터뷰

“대학발전 위해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 강화할 것”

지난달 25일 치러진 제3대 교수회장 선거에서 고경표(무역학과) 교수가 당선됐다. 오는 1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고경표 교수를 지난 3일 경상대학 연구실에서 만났다. 그는 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수회 위상 정립, 교수 처우 개선 등 그동안 자신이 구상해온 청사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교수회장을 맡은 소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를 제3대 교수회장으로 당선시켜 준 교수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나와 함께 공정한 선거에 임해 주신 강민수 교수에게도 뜨거운 존경과 위로를 드리며 교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

약 4년 전 교수회가 출범한 이래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력으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교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어 교수회다운 교수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다. 그 래지만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교수님들께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소검발표회장에서 ‘교수회는 교수회다 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의미는.

“대학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선도한다. 따라서 대학 발전 없이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교수회는 대학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대학 발전을 위해 교수회의 최우선적 역할은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이다. 총장의 대학경영철학을 실현하는 대학본부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감시와 비판 기능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소홀히 하면 대학의 미래는 물론 국가와 지역의 장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대학이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교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 교수는 사회의 지성으로서 학내에서 자기성찰의 모범을

공정한 선거관리와 교수회 위상정립에 최선
이익단체 옛말... ‘교수윤리강령 제정’ 필요

보여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막중한 묵시적 책무를 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자성이 대학이 사회의 동력이 되고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교수회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 우선 코앞에 다가온 총장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현직 총장이 재도전한다는 설이 강력히 제기되는 가운데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병자한 관공선거의 가능성으로 인해 자칫 공정한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총장선거 만큼은 보다 엄격하고 공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교수회장으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계획이다.

둘째는 교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교수회와 대학본부는 동전의 양면과 비슷하다. 따라서 대학의 모든 정책에 대한 정보는 교수회와 대학본부가 공유하고 대학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과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 교수회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기능강화를 위해서 교수회의 위상 정립은 필수적이며, 이는 학칙을 비롯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 교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교수회장의 위상도 실질적으로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수회장도 대학발전에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총장과 동일한 선상에서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교수회장 당선 인사차 고충석 총장님을 방문한

- 이익단체였던 교수회가 지난 2004년 법제화돼 일정 예산과 함께 학내 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갖고 있다. 교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교수들의 이익만을 위한 단체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물론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교수회는 교수들만을 위한 이익단체로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교수는 연구와 강의 그리고 사회봉사라는 법제적 책무를 감당하고 있다. 대학학사행정도 이러한 교수들의 책무를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정책은 이러한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 사회봉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립되고 이행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절점이라고 생각한다.

교수회는 대학의 정책을 심의할 때 이러한 측면을 유심히 살피면서 교수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학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다. 앞으로 교수회를 통해 우리 대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자 한다.”

- 학생의 교육, 학문의 연구, 국가와 지

역이 요청하는 봉사,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협력을 교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교수 본연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교수회 차원의 윤리강령 제정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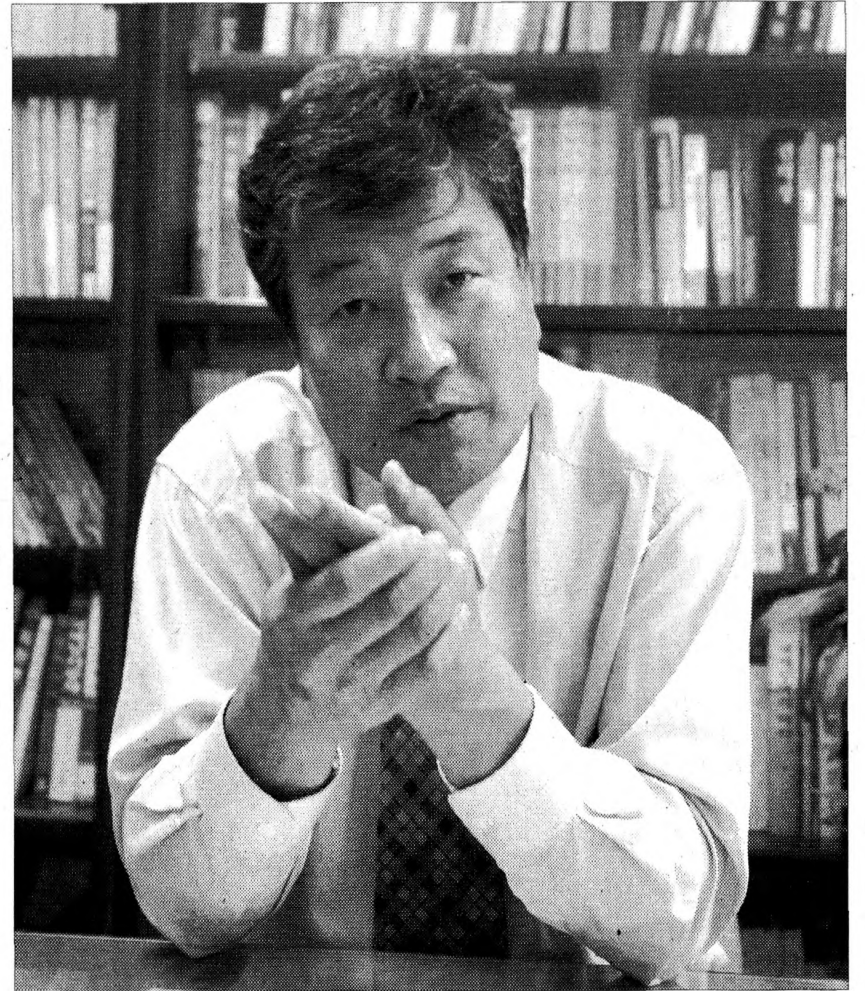
“최근 우리 대학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발생되어 교수회장 당선자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번 일로 제주도민을 비롯한 우리 대학을 아끼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과 누를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지겠지만, 다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함께 윤리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취임하는 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학의 자정노력을 통해 우리 대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토록 노력하겠다. 이번 불행한 일이 발생된 데 대해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다시 한번 교수회장 당선자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이미 총장에 두 차례 도전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다. 내년 총장 도전을 포기하고, 교수회장에 도전한 이유는.

“총장에 출마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수회장에 도전하니 의아스러운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우리 대학은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유일한 제주지역 국립대학이다. 총장을 비롯한 모든 대학구성원들은 이러한 점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제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든 진취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어려웠던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대 중반 교수협의회를 부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교수회의 안타까운 현실



을 의면할 수 없었다. 교수회가 교수회답도록 부족한 역량이나마 보태야 한다는 다급한 욕구가 솟구쳤다. 교수회 위상정립을 위한 쓰라린 시련에 과감히 뛰어 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 대학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 마디로 교수회를 사랑해 주고 아껴 달라. 최선을 다해 대학발전과 교수님의 권익옹호에 진력하겠다. 교수회는 교수회장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

합심해서 교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교수회와 대학본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때문에 교수회의 발전 없이는 대학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제주지역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이러한 대학의 책무를 가다듬고 각자 위치에서 대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용복 대기자

■ 규칙적인 운동과 웰빙의 관계

대학생 시기에 건강한 심신 만들어야



양명환
체육학부 교수

대학생들은 심신의 발달단계로는 청소년기 후기인 성숙기에 있으며, 생리적으로는 화골기(化骨期)에 있기 때문에 신체 발달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대학생들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입학과 더불어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대학으로부터 스스로 책임지며,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생으로서의 요구와 기대를 강하게 받게 된다.

더구나 캠퍼스 내에서도 존재하는 독특한 대학 문화라는 공간에서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적응 및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경제사정의 어려움과 취업난과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들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대학생들이 많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학업, 진로, 인간관계, 건강, 취업 등과 관계있다. 그 중에서도 학업과 진로문제에 의한 갈등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1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년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대학생들의 우울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학생들의 26.8%가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발병된 우울증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정신장애들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젊은 학생들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나 우울 등과 같은 정신질환들은 일 반적으로 심리치료를 약물치료를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들어 운동이 이러한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실제로 운동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Sachs(1984)라는 운동심리학자는 활발한 신체활동이 왜 우울증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요인들을 확인했다.

이러한 요인들에는 숙달감, 인내, 변화역량, 일반화, 기분전환, 긍정적 습관 또는 중독, 중세 경감, 의식변화, 유산소성 운동에 수반되는 생리·생화학적 변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운동이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이유는 운동을 통한 성공 경험, 활발한 신체활동 참여시에 수반되는 인지-정서상태의 변화, 단·장기적인 신체활동 참여의 결과로 나타나는 생리적·생화학적 변화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

다. 운동과 스포츠 활동 참여가 생리학적 차원의 해박뿐만 아니라 긴장 이완, 우울증 감소, 불안 및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자기통제력, 그리고 자기 실현감 등의 향상을 야기함으로써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웰빙(well-being)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 안녕, 복지 등이다. ‘삶의 질’을 강조하는 용어이며, 원래 미국에서 웰빙은 반전운동과 민권운동 정신을 계승한 중산층 이상 시민들이 고도화된 참담명에 대해 자전주의, 뉴에이지 문화 등을 받아들이면서 파생된 삶의 방식으로 부각됐다.

웰빙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삶의 유형이나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다. 특히 신체활동과 운동이 심리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많은 스포츠심리학자들은 운동과 주관적 웰빙,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웰빙 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주관적 웰빙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념과 함께 수반되는 유쾌한 정서를 포함하는 주관적 경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것이 신체적, 지적, 사회화적인 간에 욕구만족에 따라서 유쾌한 감정이 수반될 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규칙적이고 활발한 신체활동은 주관적 웰빙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최근에 양명환 등(2008)은 제주도내 6개 대학의 학생생활관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도와 주

관적 삶의 질 및 상태 자아존중감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려는 연구를 실시했다.

여가활동 유형은 건강·스포츠, 취미·교양, 관람·감상, 오락·사교 및 봉사·종교 활동으로 구분하였고, 주당 참여빈도와 강도 및 1회 참여시간을 측정하여 주관적 삶의 질과 상태 자아존중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가활동 유형 중 건강·스포츠활동만이 주관적 삶의 질과 상태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서, 건강·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상태 자아존중감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스포츠활동은 주관적 삶의 질을 경유하여 상태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됨으로서 건강·스포츠활동은 대학생들의 생활만족뿐만 아니라 상태 자아존중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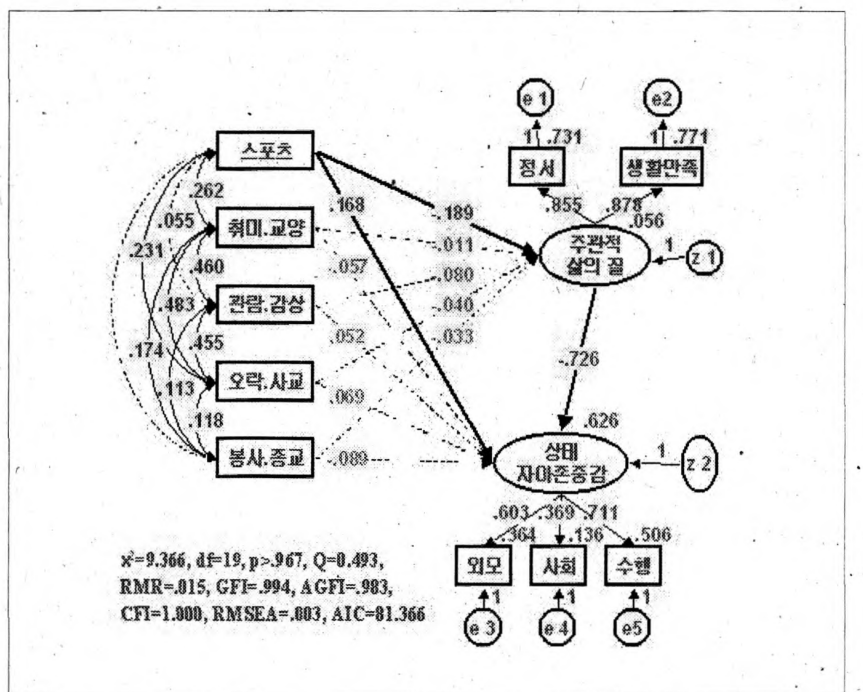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의 하나일 것이다.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정도를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삶의 전반에 걸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한다. 협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성이 높아 따뜻하게 남을 대해준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과도한 음주, 비정상적 식습관, 자살 충동과 같은 도피행동

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개인이 갖고 있는 자아존중감은 학문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감정적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아존중감과 같은 세부적인 영역의 자아존중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된다.

흥미롭게도 자아존중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적 자아존중감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양이나 서양, 남자나 여자, 젊은이와 노인을 구분하지 않고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남녀노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공부, 인간관계, 감정보다는 신체가 삶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의 추구라고 여겨왔고, 모든 국가나 사회는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 또는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여 왔다. 특히 신체활동을 통한 유능한 공민 육성,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은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문화에서도 중요한 교육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 학업과 휴식, 가정과 사회, 자신과 공동체 등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를 이루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겸비하여 할 것이다.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정도, 주관적 웰빙, 자아존중감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무문유설

학습 윤리에 대하여

커닝과 컨트롤V (붙여넣기)의 유혹



고 전
교육대학 교육학 교수

2004년 수능시험의 휴대폰 입시 부정 사건을 계기로 커닝이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었다. 언론엔 무감각 시험 전통의 고교가 소개되고, 국회에서는 교육기본법까지 개정하여 '학습윤리'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 강제규범이 인간의 양심을 규율하기 어렵듯이 사법(死法)임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지극히 자유로워야 할 학습과정에서 이처럼 과도한 경쟁과 긴장으로 전이된 것은 학습의 결과에 따라 교육

의 기회를 배분하고 나아가 대학이나 직업 선택을 넘어 인생배분의 과정이 된 탓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경계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만나고 있는 듯도 싶다. 어느 측구해설가의 말처럼 오십도 경기의 일부뿐이라 생각하고 학습경쟁에서 이런저런 학습불륜(學弊不倫)을 모른 채하거나 외면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과정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학습윤리는 역시 보고서와 시험에 관계된다. 남의 눈 속이기와 남의 글 퍼오기로 얻어낸 A학점은 인생 기교(Artifice)의 이니셜에 지나지 않는다. 학기말 시험 즈음에서의 강의실 풍경은 대학의 학습윤리의 실체를 보여준다. 시험이 끝난 후의 책상 위의 글씨와 흩어진 종이쪽지 모습은 어느 대학교고 예외가 아니다. 학기말이면 교수는 시험감독자로 지위변동을 하지만 학생들로부터는 어설플 감독에 대한 항의를 받기도 하지만 진화해가는 현란한 테크닉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이 입학식 때 학생들로 하여금 명예규율(honnor code)에 서명하게 하고 남의 글을 도용하거나, 학습부정시 퇴학까지도 불사하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의 한문대학이 대학차원에서 이 제

도를 도입하였고, 몇몇 사립대학에서는 무감각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내 생각엔 적어도 교대와 사대 그리고 신학대학에서는 이 '양심감독'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무감각 시험을 실시해 본 경험에 있는 나로서는 그것이 학생들의 자각에 기초하지 않는 한 성공하기 어렵고, 있을 수 있는 부정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부실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큼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양심과수꾼이 되어주는 무감각 시험제는 굳이 인사(人師)를 꿈꾸는 예비교사가 아니라도 성취감과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정신건강에도 좋다. 과일서리가 절도적이지 커닝이 대학 생활의 낭만정도로 치부되던 시대는 지났다. 여러 고교에서 무감각 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데 학창시절 양심 밭을 일구지 못한 교사가 그들 앞에 양심감독으로 나선다는 것은 분명 희극이다.

학기중간이나 말에 받아보는 학생들의 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어디서부터 자신의 글이고 어디서부터 퍼온 글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남의 글에 동감하여 인용하면 그만인 것을 기본적인 학습윤리를

배운 적이 없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공직에 진출할 즈음에야 그 습관은 뒷덜미를 잡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나 교육자 입장에서 제대로 인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해 부끄럽고, 그런 학습윤리를 공유할 기회를 갖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어야 한다. 그리고 체험과 사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글은 읽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체험하고 사색할 시간의 여유를 가지도록 하라. 원로 수필가 김태길 선생님의 말씀이다. 인터넷 접속에 20초를 기다리지 못하는 안달병에 걸려있는 우리로서는 값이 새겨지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자신의 경험을 정제하는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일까? 지식과 정보의 저장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자료를 섭렵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판에서 컨트롤 C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험과 사색의 반추 없이 컨트롤 V로 이어진다면 결국 스스로 제어 못해 복사인생으로 낙착되는 것은 아닐까. '학습 양심 운동'- 돈 안드는 정신적 창학 슬로건으로 생각해 보는 어쩔 수 없는 제안.

사설

취업률이 대학경쟁력인 시대

10월 들어 금융기관의 공채를 시작으로 하반기 취업시장에서 공개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늘 그렇듯이 취업시즌만 되면 어깨가 축 늘어진 졸업생들의 모습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져다 준다. 취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교수님들이 애쓰시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지만 공인된 영어 성적 등의 미비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제3차학의 핵심요소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취업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대학 차원에서 먼저 현재의 학생들을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재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와 비전과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대학이 취업을 위한 장소나 하는 우리도 있을 수 있지만 취업우선이라는 현실적인 면을 도외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2008년 4월 1일 기준 전국 대학의 취업률을 포함한 13개 항목 56개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는 것이다. 공시내용 중에서 학부와 수험생들의 관심의 대상은 대학과 학과의 취업률 지표일 것이다. 공시제도와 더불어 대학경쟁력과 국제사업의 지표로서 대학의 취업률을 중요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대학마다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취업시장이 협소하다는 지역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우리 대학교의 취업률 저하의 요인이자 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학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냈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원의 운영과 취업동아리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배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심도있게 전공분

야의 실력을 쌓았다 해도 취업현장에서의 첫 번째 관문은 외국어 특히 영어실력이다. 영어가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공개채용시장에 원접수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것은 학과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학의 정책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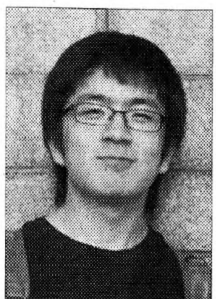
그간의 외국어 특히 영어 실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영어실력은 별반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아무리 전공분야에서 많은 실력을 쌓아도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영어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도전해 볼 용기가 나지 않게 된다.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는 학과에서 아무리 학생들에게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학교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실력을 함양토록 계속 내달려 둔다면 외국어 실력향상은 요원할 것이다. 취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어는 강제적인 졸업인증제 같은 제도에 의해서라도 실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하며 새로 개편되는 교과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일수록 대학의 교육이 살아나야 한다. 교육의 효과는 당장 취업률에서 나타난다. 취업률이 상승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될 것이고 연구능력의 신장과 함께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는 즉 교육과 연구가 동반성장하는 시너지효과를 얻을 것이다. 교육이 죽는다면 대학의 존재이유가 부정되는 것이다.

특히 2009학년도부터는 대부분 학과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므로 학과차원의 취업률제고에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따라서 학과마다 취업전담 코디네이터 교수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취업지도와 기업과의 네트워크확대를 꾀하고 이를 통해 인턴십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한다면 이삼 년내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본이 될 것이다.

독자기고

교사자질 함양에 걸맞은 답사 필요



박세선
교육대학 국어교육 2

지난달 22일부터 3박 4일로 답사를 다녀왔다. 이것 보라 저것 들으라 정신없던 나날이었다. 단순히 강원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호석 문학관, 만해마을, 허균·허난설헌 생가, 명성황후 생가와 같은 곳을 둘러보며 배운 것은 아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요긴하게 쓰일 지적 자산이 될 것이다.

답사가 끝나고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만났다.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는 도중에 답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답사를 어디로 갔다 왔냐는 친구의 질문에 나는 순간 부끄러웠다. 타 대학의 답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학교의 '답사'는 이것저것 둘러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애초에 답사 프로그램을 실시한 목적부터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견문을 넓히거나 넓은 세상을 보고 온다거나 하는 식의 목적으로 답사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면 이 목적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므로 답사의 목적도 그렇게 이어져야 마땅하다. 만약 답사의 목적이 초등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답사를 이끌어 가야할까. 우리가

현재까지 다녀왔던 답사 그대로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작년 과에서 답사를 갔을 때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용택 시인을 만나 교육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비록 짧은 강의였지만 현대 교사의 부족한 점, 개선할 점과 같은 것을 마음 속 깊이 새겨주었다. 나는 그 짧은 시간동안 교사로서의 마음가짐과 같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이 정도라면 교육대학이라는 우리의 목적에 맞는 답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과 외의 다른 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즐기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며 특정 주제 없이 주위에 있는 명소를들 관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즐기 말자는 것은 함양이라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답사를 이끌어 가야할까. 우리가

를 정하여 답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 과의 특성에 따라 특별한 주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배타고,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나가서 이리저리 둘러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외'답사라고 한 것 지을 것이 아니라 도내라도 충분히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배울 것이 많음을 인식하고 '도외'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결단력과 그것을 받아들일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교사의 자질을 기른다는 목적을 두고 답사는 어떠한가. 한다면 고정관념을 깨고 본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우리가 앞으로 가르칠 학생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답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신문』을 읽고

양 캠퍼스간 가교 돼주길



김다혜
교육대학 국어교육 2

며칠 전 약성 댓글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배우가 괴로움을 호소하다 자살했다. 이 소식이 곳곳의 신문에 실려 모두가 안타까워했다. 이를 보면서 글이라는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울고 웃게 만들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개인의 의견을 담은 짧은 인터넷 상의 글 하나에도 영향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서 사회가 떠들썩하게 된다. 심지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담아내는 언론이 사회에 주는 영향이란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쉽지 않은 대단한 파급력을 지닌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언론의 힘은 넓게 보아 국가라는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인가를 불문하고 그 집단에 영향을 끼치며, 같은 논리로 이 힘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도 적용된다.

제주대학교와 제주교육대학교 간의 통합이 이뤄지면서 우선 학교 곳곳에 붙어 있던 대학 명칭들이 변하였다. 그리고 통합 지원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수업기들이 학교에 속속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교육대학에 대학 중인 내기 통합을 실행하는 수위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였는지 몇 주 전 과실에 놓여있던 『제주대신문』을 보고 이것저것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통합이 되기 전, 제주교육대학교 미디어센터에서 제주교육대학교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언론이라는 것이 집단 내에서 지나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꼈던 터라 더 그랬던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대신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교육대학의 소식을 봤을 때의 그 느낌이 비단 나만의 느낌만은 아니라 여겨진다.

지금까지 만약 『제주대신문』이 아라캠퍼스 학생들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아라캠퍼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사라캠퍼스 학생들의 가

려운 곳도 긁어줄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아직 두 차례 밖에 『제주대신문』을 읽어보지 않았다. 즉 신문을 많이 봐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문의 성격이 어떻든지 내용이 어떻든지 등의 속단은 내릴 수 없을 것 같고, 내리고 싶지도 않다.

다만, 『제주대신문』이 할 수 있다면, 떨어져 있는 아라캠퍼스와 사라캠퍼스 간의 거리를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긴요한 다리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현재, 양 캠퍼스의 물리적인 거리만큼 서로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정신적인 거리 또한 먼 것이 사실이다.

이들 신문에 나타나는 각 소식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칼보다도 강한 붓'의 힘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 건장한 기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한결웁게 다가가는 신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이 신문을 통해 학교의 문제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문제점을 솔직히 제기하며 새로운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제주대신문』을 자신의 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 항상 손에 잡는 신문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대학 내일’을 아시나요



김은하
경영학과 2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만나는 통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좋은 통로는 그 세상 안에서 직접 체험하며 부딪히는 방법이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 때문에 우리는 타 지역이나 서울권·지역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에만 대학교도 몇 개 없고, 지역 사회가 좁은 관

계로 다양한 사람들, 여러 종류의 세상을 만나는 기회가 적다. 그러다 1학년 때, 우연히 신문 배포대에서 '대학내일' 잡지를 보게 되었다. 그 때 이후로 '대학내일'의 열렬한 팬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독자기도를 쓰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대학내일'이라는 잡지를 소개하고 싶었다. 이 잡지는 내일신문에서 발행하는 대학생을 위한 잡지로서 공모전 정보, 세계 여행담, 친구들의 대학생 활이하기, 취업정보 등이 담겨져 있다. '대학내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유지'대학 친구들의 대학 생활이하기, 그들이 꿈꾸는 것, 그들의 생각을 만나게 된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정보를 얻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 잡지는 매수나의 자취를 찾고, 많은 것을 반성하게 했고 배운 점이 많아서 다

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 둘째, '대학내일' 잡지가 원할히 배포되지 않는 사실을 알리면서, 배포담당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싶다.

'대학내일'이라는 잡지는 매주 발행 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이면 배두관이나 경성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잡지는 몇 주에 한 번씩 배치되거나, 한동안 없는 경우가 많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도 "대학내일 잡지 어디에 비치되나요?"라고 잡지가 있는 곳을 찾는 사람의 글과 잡지를 못 읽었다는 글을 봤다. 나만 '대학내일'을 찾게 해 주라는 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내일' 배포를 담당하는 곳을 찾아 개인적으로 홍보팀과 언론출판센터에도 여러번 찾아갔지만 담당이 아니라는 이야기밖에 듣지 못했다. 결국 담당

부서를 찾지 못했고 이제는 더 이상 어디에서 배포담당자를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혹시 담당자께서 이 글을 읽게 되면 '대학내일'을 기다리는 제주대학생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즐겁게 '대학내일'을 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잡지에 나온 공모전이나 참여프로그램 중에서 지원 자격 안에 서 울/경기지역 대학생만을 원하는 것을 볼 때면 여전히 씁쓸하다. 하지만 그것 말고도 멋진 대학생활을 만드는 기회들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기회를 잡는 방법 중 하나가 '대학내일'을 읽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누구라도 좋다. 심심해서 무언가를 읽을거리를 찾는 당신에게, 다른 대학교 친구들의 대학생활이 궁금한 당신에게, 대학생활에 자궁까지 필요하지만 담담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결국 담당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여론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 점, 활동 체험기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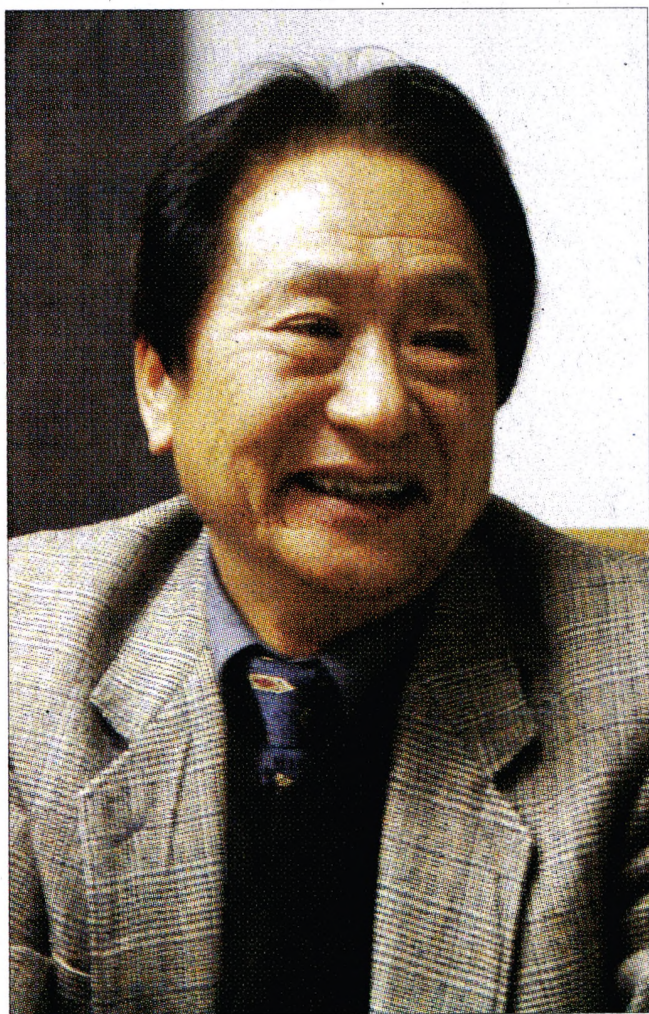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ju88@cheju.ac.kr
홈페이지 http://www.news.cheju.ac.kr

미 LA에서 부동산 중개업 오주태씨

“재외동포 자녀들 대상 장기연수 실시했으면”

제주인들 매사에 ‘근면·성실’... 현지서도 인정받아



미국 LA 한인사회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오주태(64) 씨는 “미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1978년 9월 만 34세의 나이로 단돈 200달러를 들고 도미, 청소부 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한 오주태씨는 언론계, 요식업, 무역업 등 여러 다른 사람들처럼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러다가 수년전에 LA 윌셔가에 아메리카부동산을 설립하면서 부동산 업계에 진출했다.

이곳 회사에서 오씨는 장남과 함께 회사를 꾸려가고 있다. 그는 30년 이민생활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와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나직 치우면 미처 도망 못간 게들이 모여 있었고, 우리는 환호를 지르며 그 계를 잡았었다”고 회상했다.

오씨는 제주북교와 제주상고를 졸업하고, 고향 제주를 떠나 이민하기 전까지 서울에서 생활했었다.

오씨는 “10년 전에 고향을 방문했었는데, 지금은 탐동 일대 개발로 어릴 적 추억이 망가져 버렸지만, 지금도 그곳이 그리워 저절로 발걸음을 옮겼었다”고 말했다.

처음 이민 왔을 때는 언어문제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준비 없이 무작정 이민을 선택했던 오씨는 미국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공부를 했다. 이민 초기 어느 정도 영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말했다. 그는 제주인들은 매사에 근면, 성실해 현지서도 인정 받는다고 덧붙였다.

제주대신문의 재미제주인 취재 소식을 듣고 취재팀을 찾았다는 오씨는 “나이라도 들다보니 고향 제주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서 “고향 후배들이 이곳까지 찾아온다는 소식에 한결 마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적 제주시 칠성동 근처에 살았는데, 지금도 서부두 앞바다에서 보말과 게를 잡았던 추억이 생생하다”면서 “동네 친구들과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앉아 돌뱅이를 하

미국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처음 학원을 다닐 때도 어색하기만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적응이 되자 학생때 못지않게 공부했다. 당시 배움의 기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기억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오씨는 의아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다. 오씨는 집이 있는데도 주택 청약신청을 해서 당첨되고 그래서 큰돈을 버는 것이 무엇보다 이상하다.

오씨는 “내가 보기에 집 있는 사람들은 그 자량을 하는 게 일”이라며 “미국에선 거의 투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집은 거주 개념으로 생각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세금을 많이 매기기 때문에 집이 투기와 영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는 현재 약 200만 명의 재미동포와 한국인들이 E2(투자)비자를 발급받아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 1세대들이 세탁소, 슈퍼마켓 등 육체노동 및 소자본 투자에 주력했다면 최근 2~3세대 한인들은 반도체, 컴퓨터 등 지식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고 전했다.

오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재미 남가주 제주도민회 5대 회장을 역임했다. 그래서인지 재미제주인들의 단합과 제주도가 운영하는 하계향토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하계향토학교는 제주인의 얼과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일인 만큼 그 중요성이 큼니다. 제주 문화와 언어교육은 물론 2·3세대들의 교류도 이뤄지는 만큼 장기연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오씨는 “자녀들이 거의 한국말을 못해 한글을 배우려는 재미제주인 2,3세대들이 늘고 있지만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된다”며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제주에 와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정용복 대기자

미 LA 주택가에 한의원 개업한 이신범씨

“한국·미국 ‘통’ 하게 하고 싶어요”

재미제주인 간의 활발한 교류 기대

한 의사 이신범(41) 씨 ‘왜 한국에서 한 의사 하면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데, 미국까지 이민 오게 됐느냐’는 질문에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냥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그는 “그렇듯하고 거창한 이유”를 대지 못해 미안하다는 듯 웃었다.

작업복 차림의 이신범씨는 이제 곧 문을 열 한의원 시설을 꾸미랴 마음이 더 바빠 보였다. 직접 망치와 톱을 들고 한의원 칸막이 공사를 벌이고 있었다. 왜 공사를 직접 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전문업자나 업체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직접 만들고 수리해야 합니다. 독한 마음 먹고 이민까지 왔는데, 이 정도야 스스로 해야 되죠.”

20평 남짓한 한의원엔 검진기기와 한방치료를 위해 놓고, 처방실 공사가 한창이다. 이씨의 한의원이 차려질 곳은 미 LA 베니스가 1726번가 2층 건물로 재미 남가주 특별자치도민회 사무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이신범씨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격증이 두 개나 된다. 제주시 남문동 출생인 이씨는 제주남고, 제주중, 제주일고를 졸업하고, 세명대 한의학과를 졸업해 한의사 자격증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미국 이민을 위해 미국 한의사 자격증을 땀

10살 난 딸과 7살 난 아들을 둔 이씨는 한국에서도 누구보다 풍족한 삶을 누릴 조건을 갖췄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다. 가족이나 친지도 전혀 없는 미국 땅에 홀연히 이민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단지 단조로웠던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었

이민 온 지 100일이 지난 그의 삶은 소박하기 짝이 없다. 그는 이곳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했다. 우선 미국 한인타운에 정착한 후 이곳 삶이 익숙해지면 다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영어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의사 개업을 위해 남가주제주도민회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삼 도민회 부회장의 도움이 없었

다면 미국 생활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씨에게 고향 선배들의 사심없는 도움이 큰 힘이 돼 주었다. 남가주제주도민회원들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그것도 나이 40이 넘어서 이민을 선택한 이씨의 열정과 도전정신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제가 집에선 장남인데, 무작정 이민을 와서 주위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내서 이민 온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은 벌어요. 제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고 싶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그렇게 설명했다. 또 사회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미국도 비싼 보약값 생각하면 한의원에 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사업이 정착되면 무료진료센터를 만들어 누구나, 아무 때나 와서 검진도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미국으로 갔 이민 온 한의사. 그러나 그런 만큼 그에겐 패기가 묻어난다.

“중증 미국에서 여러 가지를 부딪치면서 역시 섬사람 기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막연히 두렵기 보다는 그럴 때마다 도전정신이 생겨나곤 합니다. 열



심히 노력해서 세상에 안 될일이 있겠습니까?”

이민 온 지 얼마 안됐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다. “어릴 적 외할머니 손을 붙잡고 협해수목장에 갔던 추억이 종종 떠오릅니다. 부모님들도 보고 싶구요.”

이민 새내기에는 아직 제주도민회 활동이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그는 “각자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모임이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끼리 자주 만났으면 한다”면서 “도민회가 주축이 돼 제주도와 제주대학교와도 교류를 활성화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용복 대기자

스탠포드대 생명과학부 재학 김윤석군

“‘도전은 아름답다’는 교훈 꼭 전해주고 싶어”

자신의 기회 직접 찾아나서는 행동 보여야

재미제주인 취재팀은 미 서부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김윤석(21·생명과학부 2)군을 만났다. 김군은 우리대학 김부찬(법학부) 교수의 차남으로 도내 최초로 민족사관학교에 입학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그는 제주대부설초등학교, 제주중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해 스탠포드대 생명과학부에 입학했다. 스탠포드대는 하버드와 예일대 등과 함께 전 세계의 최상위권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생물학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달리고 있는 대학이다. “민사고 캠프에 다녀오신 어머니는 저에게 민사고를 추천했습니다. 물론 저도 좀더 넓은 곳에서 생활하길 원했고 실력 있는 아이들과 경쟁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활동무대를 세계로 옮기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때는 이때부터였지 않

“민족사관고에는 국제반과 민족반이 있습니다. 국제반은 세계에서 활동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반이고 민족반은 국내에서 활동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반입니다. 저는 넓은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고 저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뻗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반을 선택했습니다”

김군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3년 내내 상위 5위권의 학업성적을 유지하며 과학 분야의 개인 연구 활동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중학생들을 지도하는 민사고 동아리 ‘가르치미’ 활동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사고에 입학한 후 줄곧 기숙사 생활을 했다. “다른 배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모여 생활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며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말

했다. 그러나 그는 기숙사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았다고 한다.

“입학 초기에 기숙사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기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남을 배려하는 법 또한 배웠습니다.”

■ 제주의 얼굴

그는 민사고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대학 생명과학부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특별한 공부 비법은 없지만 항상 머루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착실하게 소화해 내려고 노력했다”는 김군은 “스탠포드대학에 입학하기까지 아버지의 공이 크다”고 말했다.

“아버지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존재한다”면서 “아버지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존중합니다. 내가 스탠포드대학에 지원했을 때도 경

제적·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과 현재 대학교에서 제주 출신은 김군 혼자뿐이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도 한국인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제주출신은 그 혼자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제주 출신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것은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주의 얼굴입니다.”

그는 “제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주인이라는 소속감이 자신의 나태함을 잠재우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 부여가 된다고 한다.

■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김군은 앞으로 대학에서 생물학을 중심으로 기초 과학 공부를 한 후 대학원에 진학해 뇌과학을 전공할 계획이다.



“제 인생에 있어서 공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다방면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것 또한 제 인생에서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에 왔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없는 기회의 길입니다.”

주위에서는 거침없는 열정과 도전정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섬기는 봉사정신, 포용력을 바탕으로 한 강한 리더십을 갖춘 청년이라며 김군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도전은 아름답다’는 교훈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젊음이란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진 무한한 가능성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성실한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가 더해지면 목표에 더 가까워 집니다.”

오미숙 기자